



슬기가 샘 솟는 도서관

가치관 형성을 돕는 책 읽기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좋아 보일 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혹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강하다. 문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등장하는 인물의 개성이 강할 때, 독특할 때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에게 제시하는 인물의 상을 집약해 놓은 것이 바로 위인전이다. 그래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어린이 책 가운데는 위인전이 으뜸으로 꼽힌다.

위인전은 한 시대를 살다 간 한 인물의 삶과 업적을 총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읽어온 위인전은 이미 여러 곳에서 지적되었듯이 위인 예정론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줄 여지가 더 많다. 즉 위인전에서 다루어지는 인물들은 왕, 정치가, 장군,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성되는 위인이 아니라 태어나는 위인이기 때문이다. 몇몇 대형출판사가 출판하는 전집에는 위인 단골손님이 있는데 이순신, 김유신, 세종대왕, 한석봉, 신사임당 등이 그들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해야 한다는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 역사에 남긴 업적이나 인물됨이 부족함이 없더라도 시간적으로 짧게는 몇 백년 길게는 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우주를 넘나드는 첨단과학 시대에 수 백년전의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 유명한 위인들도 알고 보면 남보다 특별 나고 훌륭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이 참다운 위인으로 제시되는 까닭은 남다른 노력과 의지로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뚜렷한 업적을 남긴 것이어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강백향의 책읽어주는 선생님> <http://www.mymel.pe.kr/index.shtml>

정교초등학교도서관소식지

2017-5호

발행처: 정교초등학교

발행일: 2017.9.25

도서관에서 약속

- ☉ 말소리는 소곤소곤
- ☉ 발걸음은 사뿐사뿐
- ☉ 오락은 ~no



행 사 안 내 (독서골든벨)

학년	제 목	글	출판사
1-2	엄마 까투리	권정생	낮은산
1-2	당근 먹는 티라노사우루스	스므리티 프라사담	풀과 바람
1-2	작은집 이야기	버지니아리	시공사
1-2	생쥐와 고래	윌리엄 스타이그	다산기획
1-2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존세스카	보림
3-4	조커 (학교 가기 싫을 때 쓰는 카드)	수지모건스턴	문학과 지성사
3-4	형광고양이	아더우	푸른날개
3-4	마법의 설탕 두 조각	미하엘엔데	소년한길
3-4	종이밥	김중미	낮은산
5-6	어린왕자	생텍쥐베리	베텔스만
5-6	안네의 일기	안네프랑크	한국어린이 교육연구원
5-6	책과 노니는 집	이영서	문학동네

[독서골든벨]

*일시 : 2017.10.18(수)

*장소 : 본교다목적실

*시상: 최우수.우수.장려 각1명

*학년별 해당 도서를 정독하고 행사에 참여해 주세요



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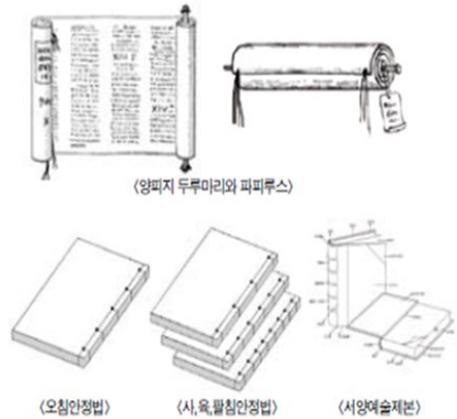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책, 현재의 모습을 하기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고도 할까요? 언어를 통해 주고받던 정보를 저장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 기호를 만들고 문자를 만들어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의 모습을 갖춘 그 처음은 양피지 두루마리와 파피루스입니다.

점차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후에는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현재의 책의 모습과 흡사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의 오침안정법과 일본과 중국이 사용했던 사침안정법, 육침안정법, 팔침안정법으로 만들어진 책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화려한 양장본의 형태로 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책은 서민층보다는 귀족층에서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생계에 시달리는 서민층 중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책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이 그 시대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으며, 인쇄술 역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기에 책은 더욱 서민들에게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책을 단순히 평면적인 면으로 보는 것에서 탈피한 다양한 팝업 북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 책을 중심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책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디지털 기기가 발전함에 따라 책의 모습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테블릿PC를 이용해 볼 수 있는 CD-ROM과 E-BOOK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세월을 거듭하며 책의 모습은 조금씩 진화되고 변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책들이 존재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책을 읽으며 느낄 수 있는 감동과 즐거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순간의 책 읽기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행복을 준다는 것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책 읽기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책 이 랑 친 구 해 요.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는 친구들

기간 : 7월 1일 - 8월 1일

순위	성명	학년반	대출권수
1	서*	3	43
2	이소*	2	42
3	김지*	2	38
4	임도*	3	37
5	정현*	2	33
6	이지*	2	27
7	이단*	3	25
7	자스퍼*	3	25
8	엄홍*	5	24
8	김시*	1	24
9	이효*	4	23
10	이지*	4	21

도서관 활용 학급 . 인기도서

기간 : 7월 1일 - 8월 1일

순위	학급명	백분율
1	2	28.82
2	3	25.73
3	5	14.22
3	1	11.9
4	4	9.77
5	6	9.57

순위	도서명
1	놀지마 과학
2	구스범스
3	종이밥
4	쿠키런 개그 과학상식
5	책과 노니는 집